

# 액티브주식형

무배당 변액유니버설보합적립형 / 무배당 S-VIP(RedZone) 변액유니버설보합 / 무배당 우리아이변액유니버설보합 / 무배당 New100세플러스변액연금보험 /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 무배당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연금재원미보증형 /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 /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연금재원미보증형

## [ 펀드수익률 현황 ]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액티브주식형	-1.72	-6.07	-7.52	-3.89	13.83	8.34	0.32	64.77
비교지수 대비 성과	(-2.30)	(-1.87)	(-2.42)	(-1.43)	(0.96)	(-8.44)	(-13.64)	(10.43)
비교지수(벤치마크)	0.58	-4.20	-5.10	-2.46	12.87	16.78	13.96	54.34

주) 비교지수(벤치마크) : KOSPI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 자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전 기	-2,380	0	0	-12	-49	0	16	-163	-2,587
당 기	-837	0	0	0	-3	0	15	-160	-985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펀드명칭	액티브주식형		
투자위험등급	고위험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7476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8.09.01
운용기간	2018.07.01 ~ 2018.09.30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미래에셋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판매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주식투자는 주로 업종대표주, 우량주 위주로 운용을 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부분을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종목선정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순자산의 60%이상으로 하며, 상품의 특성 및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자산현황

(단위 : 백만원, 백만 원, %)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자산 총액 (A)	56,935	55,127	-3.18
부채 총액 (B)	1,005	854	-14.99
순자산총액 (C=A-B)	55,930	54,273	-2.96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33,359	32,939	-1.26
기준가격 <sup>주)</sup> (E=C/D×1000)	1,676.60	1,647.70	-1.72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인출(매입, 출금)하려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결과 및 운용계획

### >>> 지난 분기 시장 흐름 및 운용 경과

3분기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달러강세 심화와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약화, 터키 외환위기 우려까지 확산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소식에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4,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강매도세를 개시하며 KOSPI 2,300선이 붕괴되고 연중 최저치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8월 증시는 달러화 강세둔화 조짐에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계 투자은행의 SK하이닉스 비중 축소 보고서 등으로 약보합 전환하였습니다. 8월 읍선만기일을 맞아 외국인의 현금, 선물 매도공세로 지지부진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라화 급락과 터키 리스쿠가 신흥국 투심을 악화시키며 급락한 국내증시는 G2 무역협상 재개 기대감과 잭슨 힐 미팅에서의 비둘기파적 금리인상 기조, 중국 인민은행의 경기대응요소 재도입 등으로 반등하였습니다. 9월 증시는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발언과 캐나다와의 NAFTA 협상 난항으로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대북 특별사절단의 평양방문을 앞두고 남북경협주와 바이오주의 강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으나 G2 통상차찰 고조와 IT차익실현으로 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중국 관세부와 품목에서 IT 등 하이테크 품목이 제외되며, 외국인 선물 매수 유입에 따른 수급 개선으로 반등하며 분기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 환경 속에서 동 펀드는 음식료 업종의 경우 양호한 실적 및 중장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유통 업체의 경우 면세점과 온라인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였습니다. 의약품 업종의 경우 헬스케어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의약품 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어 비교 지수 대비 낮은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였습니다.

## >>> 다음 분기 시장 전망 및 운용 계획

국내 증시는 수출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견고한 기업 실적 전망치로 반등 국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임금상승 속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지속, 여기에 견고한 소매 판매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약세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완만한 반등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40%까지 하락, 2018년 이후 트럼프 지지율과 달리 인맥스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 시, 중간선거 이전까지 '트럼프 지지율'이 환율이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 미국 경기의 과열 징후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위안화 약세와 달러 강세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투자 환경 판단 하에 동 펀드는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 업종별 1등주 및 연말 배당수익률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업종 별로는 3분기 실적발표 및 하반기 실적의 방향성과 향후 1년 이상의 방향성으로 정유주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매출 및 이익이 늘어날 수 있으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콘텐츠/연예방송 기획사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 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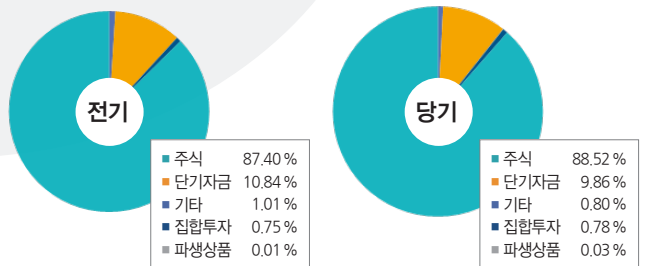
###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 자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KRW	48,799	0	0	432	18	0	5,437	442	55,127
%	(88.52)	(0.00)	(0.00)	(0.78)	(0.03)	(0.00)	(9.86)	(0.80)	(100.00)
합계	48,799	0	0	432	18	0	5,437	442	55,127

\* ( ) : 구성 비중

### >>> 자산별 구성비중



###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30.72	6	유통업	5.71
2	금융업	13.69	7	의약품	4.42
3	화학	7.54	8	통신업	3.46
4	운수장비	6.77	9	철강및금속	3.32
5	서비스업	6.20	10	기타	18.17

전기전자	30.72
금융업	13.69
화학	7.54
운수장비	6.77
서비스업	6.20
유통업	5.71
의약품	4.42
통신업	3.46
철강및금속	3.32
기타	18.17

주)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1	주식	삼성전자	18.04
2	단기	은대(국민은행)	9.86
3	주식	SK하이닉스	2.94
4	주식	LG화학	2.33
5	주식	SK이노베이션	2.29
6	주식	삼성SDI	2.27
7	주식	KB금융	2.01
8	주식	POSCO	1.98
9	주식	SK텔레콤	1.84
10	주식	현대차	1.74

주) 환율, 금리 등의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보유중인 파생상품 종목은 제외하였습니다.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단위: 주, 백만원, %)

구분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주식	삼성전자	214,092	9,945	18.04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SK하이닉스	22,182	1,622	2.94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LG화학	3,510	1,283	2.33	대한민국	KRW	화학	
	SK이노베이션	5,870	1,262	2.29	대한민국	KRW	금융업	
	삼성SDI	4,834	1,250	2.27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KB금융	20,403	1,106	2.01	대한민국	KRW	금융업	
	POSCO	3,714	1,094	1.98	대한민국	KRW	철강및금속	
	SK텔레콤	3,599	1,015	1.84	대한민국	KRW	통신업	
	현대차	7,418	961	1.74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단위: 주, 백만원, %)

구분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단기 자금	예금	국민은행	2008.09.01	5,432	1.15		대한민국	KRW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4. 비용현황

### >>>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30	0.05	28	0.05
판매회사	74	0.13	68	0.13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0	1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3	0.01	3	0.01
보수합계	109	0.18	101	0.19
기타비용**	1	0.00	1	0.00
매매, 중개 수수료	18	0.03	21	0.04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18	0.03	21	0.04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18	0.03	21	0.04
증권거래세	36	0.06	39	0.07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성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sup>주1)</sup>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sup>주2)</sup>	합계(A+B)
전기	0.7393	0.1151	0.8544
당기	0.7392	0.1236	0.8628

주1) 총보수 ·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 ·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 · 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 ·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5. 투자자산매매내역

###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수량	금액	매도		매매회전율 <sup>주)</sup>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185,858	12,887	281,948	12,930	26.82	106.40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2018년1월1일 ~ 2018년03월31일	2018년04월1일 ~ 2018년06월30일	2018년07월1일 ~ 2018년09월30일
20.67	22.90	26.82

## 6. 공지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액티브주식형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인 푸르덴셜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푸르덴셜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푸르덴셜생명보험(주) / <http://www.prudential.co.kr> / 02-2144-2000  
 금융투자협회 / <http://dis.kofia.or.kr>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http://www.kfia.or.kr>